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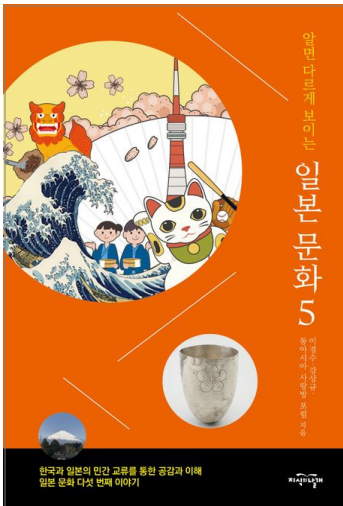
서 평

- ▮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5』
고 성 욱
- ▮ **우생학의 유제를 주변에서 발견하기**
『우리 안의 우생학』
이 재 임
- ▮ **아련한 옛 추억과 다가올 미래를 향한 여행**
『텔레비전이 시작한다』
정 용 국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5』*

고성욱**
아동문학가



모건 프리먼.

그는 미국의 많은 흑인 배우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독보적 위치를 지닌 국민 배우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그의 대표작인데,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종신형 복역수 ‘레드’로 분(扮)한 프리먼이 무려 40여 년 만에 가석방이 된다. 사회로 나온 그는 식료품 가게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는데, 화

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매니저에게 허락을 구한다. 감옥에서의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일일이 말 안 해도 되니 그냥 다녀오라.”고 한소리 듣는다. 하지만 레드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다. 그래서 차라리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갈까 고민을 하기도 한다.

내가 이 영화를 맨 처음 보았을 때, 남들이 모두 킬킬대던 그 장면에서 느닷없이 눈물이 터질 뻔했다. 자유의지의 길들임, 슬

* 이경수·강상규·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5』, 지식의날개, 2025.

** ksw0901@hanmail.net

폈다. 행동은 물론, 사유도 그렇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경험을
찾대로 타인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와 다
른 타인’은 정말 틀린 것일까?

지금 이 시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세대에게 일본은 늘 극복의 대상, 어쩐지 넘기 어려운 산이었
다. 그래서 불편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두 나라 위상은 상당 부분에서 이미 순서를 뒤바꾸고 있다. 하
지만 나는 가끔 그 사실이 어색하다. 일본의 기성세대도 다르
지 않다. 구세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는
조센징, 그들의 사고는 그런 믿음으로 길들여있다.

하지만 두 나라 Z세대들은 다르다. 그들은 양국의 역사와 정
치, 외교 문제를 문화와 분리해서 받아들인다. 상대의 고유한
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즐긴다. 일본 젊은이들은 K-POP
과 드라마, 한국 음식에 열광한다.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행의 발신지이다. 그런가 하면 신주쿠 뒷골목은 떠들썩한 한
국 Z세대들로 흥대 입구를 방불한다. 그들은 시티팝의 감성을
즐기며, 료칸과 소도시 여행담을 SNS에 자랑한다.

얼마 전, 바로 이런 시대 상황을 담은 서적이 출간되었다.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제5권이다.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이 펼쳐낸 이 책은 지난 2021년부터 한 해에 한 권씩, 다
섯 번째 발간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화를 다룬 책이
5년 연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알다일 5’에 참여한 저자는 모두 45명이다. 필진도 다채롭
다.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다수 참여했으며, 대학교수 등 일
본학 전공자 중심이지만 언뜻 일본과 별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일반인도 꽤 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분야는 달라도, 모두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경지의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무능한 국제법, 커피 한 잔의 인문학

‘1945년 8월 한국은 해방되었다. 하지만 전범이 된 청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전후 재판에서 한국 청년 148명이 B·C급 전범 판결을 받았고, 그중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일본인 A급 전범 중 처형당한 자는 7명에 불과한데 B·C급 전범으로 처형을 당한 식민지 청년은 23명에 달한다.’

‘역사의 책임, 개인의 몫’이라는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뒤처리 과정의 비극과 아픔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여기서는 B·C급 전범으로 처벌을 받은 식민지 출신 청년들의 아픈 사연을 주로 다루고 있다. 추악한 일제 권력의 강요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전쟁 범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그들을 향해 저울을 들었다.

하지만 필자는 묻는다. 그 시대 상황에서 조선 출신 전범을 향한 ‘역사의 책임’은 무엇이고, ‘개인의 몫’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반드시 역사에 되새겨야 한다. 이처럼 ‘역사의 책임, 개인의 몫’이라는 표현은 가슴을 아프게 후빈다.

이 글은 사료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무능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런데 ‘커피와 인문학’이란 글은 제목처럼 인문학적 여유와 삶의 향기가 가득하다.

“오이시쿠나레!(おいしくなれ, 맛있어져라)”

요즘 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내뱉기도 하는 이 일본어는 아주 심심한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에 등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제조 방법은 무엇일까?

영화는 대답한다. 정말 아주 간단하다. ‘온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내리면 된다.’ 언뜻 영화의 재미를 위해 에피소드로 살짝 삽입된 듯한 이 장면은, 사실은 이 영화 주제를 정확히 관통한다. 그것이 옷이든, 기계이든, 커피이든 지금 자신이 만들고 있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본인의 장인정신, ‘아름다운 몰두’를 오이시쿠나레라는 짧은 문장으로 웅변한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일본의 커피문화는 이제 정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카페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음료조차 폭발적 ‘붐’이라는 그릇에 담아야만 만족이 되는 한국, 이런 사회 현상에서도 두 나라 사람들 삶의 태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울림을 주는 글은, 독자의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결심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으면, ‘세상은 넓고, 마실 커피는 많다.’고 읊조리며 동네의 자그마한 카페로 달려가고픈 충동을 느낄지도 모른다.

다양성과 갈등, 그리고 일본정신

‘예술에서 제 분야를 오래 파면 대가가 되고, 직장에서 오래

되면 끈대가 된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한 권의 인문서에는, 필자의 철학이 담겨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일본 연구서들이 출판되었다. 그 책들에는 일본에 대한 저자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그것은 가끔 어느 정도 편향적이다. ‘국뽕’이거나, ‘일뽕’이거나... 그런 책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이런 아쉬움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45명 전문가들은 그 면면이 다채롭다. 국적도, 출신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르다. 주장은 다양하고, 생각도 자유롭다. 정치와 역사, 문학과 경제, B급 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관심사인 일본을 말한다. 또 교수이거나 작가인 열 명의 일본인도 집필에 함께 했는데, 그들의 시각도 모두 다르다. 그들도 자기의 일본을 이야기한다. 한 권의 책에 담긴 이런 다양한 시선은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하지만 이 점은 이 책이 지닌 작은 아쉬움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의 갈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전문 연구자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닭았지만, 어딘가 다른 한국과 일본’에도 다양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담겨있다. 일본인 필자가 쓴 이 글은 두 나라 사람의 문화 차이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한다.

디지털 크리에이터인 필자는 유럽 여행 내내 긴장을 했다. 그러다 한국 항공기를 타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안심이 되었다. 일본인과 정말 닭은 승무원 미소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질감은 길지 않았다. 이어진 한국 여행에서 겪은 이런저런 문화 차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닭았지만 미묘하

게 다른,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실 이런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은 이미 대부분 일본학 전공자들도 거의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일본인의 글로 확인하는 건 조금 남다르다. 상황에 대한 해석도 꽤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그걸 일본인의 사고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매우 흥미로웠다.

자연에 대한 이해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우리나라의 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머무르기 적합하지 않으면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험악한 산악지형 때문에 사람들은 땅에 묶여,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또 이런 생각도 덧붙인다. 한국인들은 ‘이상의 추구, 잘못된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극심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과거 따위(?)는 일단 관심 밖이다. 역사란 그저 과거에 벌어졌었던 일일 뿐이다. 정말 ‘화성으로 간 한국, 금성으로 간 일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가치관의 옹고그름에 대해서는 논쟁은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글을 쓸 때, 혹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시나요?”

얼마 전 ‘롱아일랜드의 사랑과 죽음’이란 영화를 보았다. 주인공인 작가 ‘자일즈’에게 인터뷰어가 묻는다. 자일즈의 지나치게 고루한 삶을 살짝 비튼 질문이었다. 자일즈가 대답한다. “나는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단어를 처리(프로세스)하지 않습니다.” 조크가 아니었다. 그는 워드프로세서가 뭔지 몰랐다. 썰

렇하다. 물론 1997년, 무려 30년 전에 제작된 영화이기에 가능한 장면이긴 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며 일본을 생각했다.

AI 생태계가 지배하는 21세기, 하지만 일본은 퇴행적이다. 여전히 도장을 중시하고,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와 팩스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고루한 가치는 일본인의 정신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47인의 사무라이 복수극과 일본정신의 근대적 발명품’이라는 글은 바로 이런 이른바 ‘일본적인 것’, 나아가 ‘일본정신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꽃은 사쿠라, 사람은 사무라이’라는 표현은 아직도 일본인들 가슴에 면면히 흐르는 일본식 미학과 가치의 기준이다. 그래서 주군을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는 47인의 낭인 이야기 ‘추신구라’는 아직도 국민서사극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있다. 이런 정신세계의 근간에는 ‘주군을 향한 충성심, 집단적 복수, 의리, 할복’과 같은 서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음모를 전술로, 기만을 전략으로 받드는 가치가 아직도 ‘일본정신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분석을 읽다 보면 일본이 살짝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 세월이 흐름에도 바뀌지 않는 것, 피해자와 가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층적이어서 한일관계를 친일, 혹은 반일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과거는 똑똑히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생각도 빼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바뀌

지 않는 것,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어두운 역사는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반성’이 전제될 때 조금이라도 지워질 수 있다. 나치의 후예임을 부끄러워하며 무릎을 꿇는 독일 총리, 야만적 원주민 정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사과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까닭이다.

어느 날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광고 카피 하나가 잔잔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오래 눈이 머문 적이 있다.

“きのうの私ときょうの私は一冊ちがう(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책 한 권만큼 다르다)”

어느 회사?

큽, 자료를 찾다 슬며시 웃음이 터졌다. 集英社였다. 슈에이샤는 일본 최대 만화 전문 출판사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조금 뒤, 슬그머니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일본 만화의 깊이를 알고 있다. 일본에는 심오한 사유와 철학이 담긴 만화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카피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잠시 얼치기 지식인 연(然)한 오만이 부끄러웠다. 앙드레 지드도 말했다.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 책을 다시 꽂아 놓았다. 나는 이미 조금 전의 내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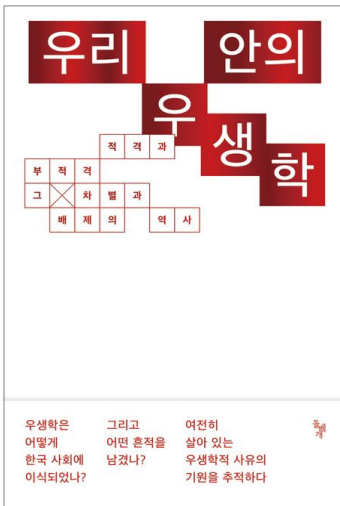
‘알다일’ 시리즈, 틀림없이 세상을 향한 눈높이를 조금이나마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생학의 유제를 주변에서 발견하기

『우리 안의 우생학』*

이재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우리 안의 우생학’. 주지하듯 국내에서 우생학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이며 그간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영미와 독일 같은 해외의 사례를 다룬 것이었다. 이 책은 우생학을 제목에 내건 책 중 ‘우리’, 한국 우생학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단행본이다.1) 한국에 우생학이 도입된 1920년대부터 유전자 산전기술이 보편화된 1990

년대까지라는 긴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역사서로 머물기보다는 우생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우리에게로 당도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는다. 물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 한센인·윤락여성에 대한 강제수용 등

* 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최은경·현재환·황지성, 『우리 안의 우생학: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 돌베개, 2024.

** wonderinglee@gmail.com

1)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은 2021년 “제2회 국제우생학회의 100주년을 비판적으로 기리고, ‘전지구적 반-우생학 연대(global anti-eugenic movement)’를 결집하기 위해 추진된 “From Small Beginning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의사학회의 지원(13쪽)을 받아 추진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일부 연구대상들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다뤄진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저자의 글이 한데 모여 이 책은 우생학을 학문으로서, 즉, 권력과 얽혀있는 지식으로서 통치를 위한 도구로 쓰인 바²⁾를 밝힐 뿐만 아니라 우생학이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상이 우생학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해내는, 즉, 우생학을 사회적 현상을 읽는 렌즈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우리 안’에 이미 우생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그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길 요청한다. 즉,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국의 우생학의 계보에 대한 앎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시되어온 우생학적 사고에 대해 사고할 근육을 키우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세 부와 여덟 장으로 나뉘지만,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유전과 생식의 통제”를 통해 민족, 국민,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실천의 형태들”(10쪽), 즉, 우생학적 지식, 제도, 담론의 작동과 그 효과를 서술한다. 둘째로, 우생학으로 활동 영역을 확보, 확장하고자 했던 과학자와 과학의 권위에 기대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했던 근대국민국가의 공모를 논한다. 셋째로, 비장애신체/정신 중심주의, 가부장제 섹슈얼리티규범, 인종주의, 정상가족주의와 맞물려 작동한 우생학적 조치로 중층적 억압에 놓인 이들의 삶을 다룬다. 이하 구체적으로 각 부와 장이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도록 하겠다.

2) 저자별로 주관점이 두는 바가 조금씩 다르며 이하 나열한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 책에서 우생학은 격리와 배제의 실천과 메커니즘, 통치의 도구 혹은 기술, 그 대상을 생산하는 지식, 내면화된 욕망이자 주체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로서 논의된다.

전술했듯 이 책은 세 부로 나뉜다. 우생학적 지식, 담론이 도입 및 전파되고 우생학적 운동이 전개되고 우생학이 국가정책으로서 실행되는 바를 다룬 “1부 민족개조의 염원”과 “2부 과학과 국가의 이름으로”는 해방 전후라는 시기 구분으로 나뉜 것이고, “3부 격리되고 배제된 이들”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가해진 격리와 배제를 중심으로 다룬 글을 모은 것이다. 이하 각 장의 내용과 주목할 만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장 ‘민족성 향상’을 위한 도구, 우생학”은 ‘아동의 발육 향상’이 민족개조론의 주된 의제가 된 1920년대를 지나 1930년대에 진행된 조선인 위생학자들의 조선인 발육 표준 연구가 일본인에 비해 열등한 조선인의 특성을 ‘증명’하며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조선인 민중의 빈곤 문제와 같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음을 짚는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전시총동원체제에서 이 연구는 전쟁 수행을 위한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글은 일제식민지기에 조선인에 대한 우생학적 지식의 생산이 가능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 지식이 식민권력의 통치가 깊숙이 얽혀있었음을 드러내는 한편,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지식이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할 도구 혹은 척도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비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주기에 흥미롭다.

“2장 여성의 ‘선택’ 속 우생학의 그림자”는 1920년대 여성 운동가들이 ‘양보단 질’로 우등한 국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생학적 논리에 근거해 산아제한운동에 찬성하고 여성들을 국가에 이바지하는 국민으로 세우고자 한 바, 1930년대 우

생학 담론 중 여성 부인과 의사가 자식의 질(유전)은 부모 ‘모두’에게 물려받는 것이며 성병은 주로 남자의 책임이라며 편견을 “과학에 근거해 교정”(75쪽)한 바에 주목한다. 즉, 저자는 우생학적 논리로 여성권리의 신장이 주장되거나 우생학이란 과학이 그에 부응하는 식으로 활용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증정자를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비혼모를 ‘초이스맘’으로 포착하며 이들의 ‘선택’ 및 그에 대한 옹호가 우생학적 사고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며 경고하는 결론은 아쉽다. 그보다는 이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들과 이들의 ‘선택’만이 조명되는 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재생산의 자유를 얻으려는 여성들의 투쟁이 가진 모순이 그것과 연루된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바, 그것이 갖는 전복적 힘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장 과학자들의 민족우생론과 그 유산”은 일본 우생학의 영향을 받은 과학자들의 학문적 계보와 활동을 따라가며 이들이 해방 후 1970년대까지 우생학 담론을 생산 및 전파하면서 한국 사회에 우생학적 사고를 뿌리내린 주요 행위자라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 이들이 저술한 과학교과서에서 우생학을 “건전한 과학”(114쪽)으로 다루고 있는 바, 1950년대 동성동본금혼제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우생학적 사유로 지지했던 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우생법 제정을 시도했던 바, 그 내용이 이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반영된 바를 가져온다. 이 장을 읽다보면 저자가 우생학에 대해 전제하듯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 나쁜 과학이 지금도 과학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 유전학자가 정치적 장에서 전문가로서 우생학적 발언을 하는 게 여전

히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되묻게 된다.

“4장 한국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은 박정희 정권기의 가족계획사업의 실행에 있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반대 여론의“우회로”(128쪽)가 된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조항이 1999년 삭제되기 전까지 시설에 수용된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로 효력을 발휘했음을 지적한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과 압박 속에서 담당자들이 집단수술이 가능했던 시설을 찾아가 수술을 하거나(141쪽) 정부의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시설장과 부모의 결정에 따라 암암리에 이뤄졌으며(142쪽) 이러한 역사는 장애인 불임수술을 사회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했다(143쪽). 저자에 따르면 1975년 정심원에서 강제불임수술을 둘러싼 논쟁에서 반대 측을 주도한 정신과전문의들은 “유전성 질환의 모호함”과 진단의 부정확함(131쪽)만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가 부족한 복지제도와 우생학적 사고 때문이라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덧붙여 장애가 있는 몸을 곧 재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기에 그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해도 괜찮다는 논리, 이들의 삶이 가족 혹은 시설에 ‘의존’하는 것으로만 지속 가능하다는 상상 속에 가족 혹은 시설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이들의 재생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바가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짚고자 한다.

“5장 산전진단기술이 만들어낸 우생학적 공포”는 비장애인 부모도 장애아를 낳을 수 있다는 다운증후군 사례, 환경오염에 따른 ‘기형아출산’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장애감별을 위한 산

진단기술이 더욱 확대 보급, 발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불구가 없는 미래를 구현하는”(167쪽) 것이 되고 있음을 짚는다. 저자가 문제화한 바 중 주목할 부분은 비장애 정상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체에 대한 “위해와 개입”이 “정당화”(166쪽)되는 식으로 기술이 설계되어왔다는 점이다. ““과학적 안전’의 외양”(167쪽)이 여성의 몸에 대한 침습을 사소화하는 바는 매우 문제적이며 저자가 “우생 기술”(166쪽)이라고 문제시하는 산진단기술의 무한한 확장세는 재생산권 정의의 관점에서 더욱 잘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기술의 향방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 활용과 함의는 우생학적인 것에 한정된다기보단 미결정되어 있다는 데서(가령, 태아의 결함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 향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독자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여지를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다.

“6장 한센인에 대한 강제 단종과 낙태”는 소록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센인 강제수용시설에서 첫째로, 남성 한센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설 내 결혼의 전제조건이 된 강제단종과 둘째로,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이전에도 시행되었으나 비로소) 제도화된, 여성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낙태시술을 다룬다. 저자는 전자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성욕 관리의 정치”(190쪽)로, 정관절제수술보다 훨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인공중절수술이 비의료인에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이들이 있었음을 밝히며 후자를 “낙인찍힌 인구 집단의 재생산” 통제(201쪽)로 설명한다. 저자는 한센인 단종·낙태의 전제조건이 시설 수용자의 무력화에 있었기에 그러한 시설 수

용 자체가 우생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설 그 자체가 우생학적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저자가 주장하듯 한국의 여러 수용시설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겠지만, 그 결론(시설은 곧 우생학적)을 예정해두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분석(시설이 우생학적 공간이 되기까지)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시설 내 혼인과 섹슈얼리티 장치를 시설 내 통치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7장 입양에 적합한 아이 찾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기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생긴 ‘혼혈아’의 해외 입양이 양국 및 해외입양기관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 추동된 바와 이에 의학과 유전상담가가 어떻게 자신들의 직업적 야망을 위해 개입했는지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은 단일민족공동체의 구축과 빈약한 사회복지 제도 때문에, 미국은 ‘아버지의 나라’로서 책임을 지며 동맹국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해, 해외입양기관은 종교적·인도주의적 목적에 의거해 혼혈아의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저자가 명시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로, 이 글을 읽다보면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국적법의 가부장적 규범과 ‘아버지 국가’인 미국으로의 입양이라는 경로의 연속성이 보이고, 둘째로, 이 글은 혼혈아를 “치료 불가능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신체”(217쪽)로 구성하고 해외입양을 곧 정상성의 부여로 여기는(218쪽) 담론 등 해외 입양을 혼혈아의 몸을 ‘입양에 적합한’ 몸으로 재/생산하는 실천으로서 주목할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명시적으로 우생학적이진 않은 ‘합리적인’ 근거로 혼혈아의 해외입양이 정당화되었다는 식으로 연구자의 입장은 모호하게 서술되는데 최근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아동의 ‘상품화’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문제로 떠오른 만큼 해외입양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8장 정신적 결함, 성적 일탈, 우생학”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한국의 정신의학이 미국식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미국 정신의학 훈련을 받고 한국 군인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은 정신보건전문의들이 (이용자가 부유한 계층으로 한정되어 한계가 있던) 병원의 바깥, 시설의 수용자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의 몸”(266쪽)을 자신들의 “영향력과 권한”(275쪽) 아래 둘 대상으로 포착했다. 이어 저자는 부녀보호소의 사례에서 이들이 지능 검사와 성병 검사를 통해 여성 수용자들의 정신적 결함을 ‘발견’해냈고,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들이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수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통치적 주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핵심적 표적”이 되었으며 가부장제·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아래 이들의 시설수용과 “우생학적 병리화와 장애 호명”이 이들을 불구화하는 데 결정적이었음(276쪽)을 밝히는 이 글은 매우 인상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바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생학은 우월/열등과 정상/비정상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유전과 생식에 개입하는 과학기술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의 곳곳에서 한국은“우생사회”라고 명명되는 것은 이러한 사고가 현재 여기의 우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건전한’ 과학지식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사회

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책의 핵심으로 보인다. 둘째로, 과학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과학이 어떤 사실 혹은 인과관계도 확증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책에서 낱낱이 해부된 우생학은 과학이란 ‘자연’의 ‘진리’를 밝히는 ‘객관적’ 지식이라는 통념을 흔들고 과학적 지식의 생산이 과학자의 몸이 속한 시대 및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명된 타자가 부재한 미래가 더 가치있다는(이것에도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우생학적 믿음과 확신이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배가하면서 더 나은 돌봄을 상상하고 다른/변화하는 몸과 마음들을 살필 숨통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우생학의 미래에서 버림받아온 이들의 미래, 이들이 있는 미래를 꿈꾸기 위해, 우리는 우생학으로 점철된 과거를, 그리고 그 유제를 물려받은 현재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아련한 옛 추억과 다가올 미래를 향한 여행 『텔레비전이 시작한다』*

정용국**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나는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의 75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나의 부주의한 차선 침범 때문에 내가 운전하던 소형 승용차가 대형 트레일러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였다. 다행히 찰과상도 입지 않았지만, 차는 폐차를 시켜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기에 그 이후 운전을 즐기지 않게 된 나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후 대

중교통 애호가가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인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을 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있다. 그것은 이동 시간 중에 책을 읽든, 게임을 하든, 동영상을 보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퇴근 중에는 버스 안에서 주로 책을 읽는데 특히 변우민 배우, 변지원 교수 오누이가 쓴 『텔레비전이 시작한다』를 읽던 당시 출퇴근 시간은 하루 중 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심지어 차량정체가 일어나기를 은근히

* 변우민·변지원, 『텔레비전이 시작한다』, 지식의날개, 2024.

** yonggook12@uos.ac.kr

바랐을 정도로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졌었다.

이 책을 읽으며 즐거움을 느꼈던 이유는 내가 저자들과 같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며 정서의 많은 부분이 텔레비전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출생 연도별 인구 기준으로 내가 태어난 1969년생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만화영화 『미래소년 코난』, 『플란더즈의 개』, 최수종과 김희애의 드라마 『아들과 딸』, 최민식과 한석규의 드라마 『서울의 달』, 최민수와 박상원의 드라마 『모래시계』, 스티브 맥퀸과 폴 뉴먼의 영화 『타워링』 등 수많은 명작을 텔레비전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그뿐이라. 1977년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의 투지로 헥토르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히는 장면,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 이후 한대화 선수가 쓰리런 홈런을 날려 일본을 꺾던 장면,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끌던 한국 대표팀의 김종부, 신연호 선수가 골을 넣고 세계 4강에 오르던 장면 등이 내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된 이유는 그 경기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화제의 상당 부분은 그 전날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 매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나 이전의 세대뿐만 아니라 나보다 젊은 세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5쪽에 게재된 화면 조정 시간 사진은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된 1980년 겨울을 추억하게 한다. 당시 우리 집은 금성사에서 만든 14인치 컬러 텔레비전을 구입했으며 그 때 텔레비전 리모컨을 처음 만났다. 장치에 접근해서 로터리식 채널을 돌릴 필요 없이 멀찍이 누워서도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 다른 방송사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이란. 하지만 하드웨어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 영화에서 총에 맞은 군인이 흘리는 피가 섬뜩한 붉은색이고 브라질 축구 대표팀 선수의 유니폼이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가 아니라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중문화 평론가 강헌 선생의 주장에 따르면 컬러 텔레비전의 시작은 라디오에서 흑백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는 변혁보다 시청자에게 몇 배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변우민 배우와 마찬가지로 컬러바를 보여주는 화면 조정 시간부터 방송이 끝난 후 들려주는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던 모양이다.

85쪽의 언론고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나는 팬데믹의 발발과 함께 미증유의 비대면 교육을 준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영상 매체의 수동적 시청자에 불과했던 나는 적극적 제작자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OBS Studio로 동영상을 만들고 뱍믹스로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 텔레비전을 통해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우리 세대는 영상을 통한 정보 수집력도 이전 세대보

다 낮다고 생각한다. 그 조악한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니고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어렵다.(86쪽)”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인 편집 과정은 방송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완성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 주었다. 더구나 편집 중에 나 자신의 표정과 말실수를 다시 보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고통에 가까웠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편집을 마친 동영상의 러닝 타임이 수업 시간에 모자람을 발견했을 때의 좌절감이란... 왜 영상 제작자들이 “분량”에 목숨을 거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다. 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좋든 싫든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이기에 이른바 “노잼”이고 품질이 낮아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만 재미가 없어도 시청자가 빛의 속도로 채널을 바꾸는 냉혹한 콘텐츠 시장에 자기의 작품을 내다 팔아야 하는 전문 제작자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명석하고 치밀한 사람들일까. 그래서 영상이 재미가 없거나 품질이 좀 떨어져도 이제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려 한다.

153쪽에서 저자가 <유튜브는 텔레비전의 스핀오프>라고 주장하는 데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이른바 OTT 미디어가 주류를 형성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시장은 일견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The tail wags the dog) 역설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OTT 미디어가 텔레비전보다 나은 점은 시청 시간의 결정권이 방송국에서 시청자로 옮겨왔

다는 점이다.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몰아 보든, 끊어 보든, 다시 보든, 빨리 돌려 보든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하지만 OTT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는 고전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영상 매체를 더 쉽고 자유롭게 접하게 될수록 그 품질에 대한 스탠다드는 급속히 높아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시청자의 눈은 더 간사해진다. 따라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기성 언론사의 콘텐츠가 더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음은 방송국이 아예 망하리라 예측하는 것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기성 방송사들이 축적하고 있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장비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56쪽의 “텔레비전은 아직 살아 있다. 이들이 언젠가 찾아 주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 주기를 기다리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202쪽의 <연예인의 반대말, 일반인>에서는 인기인이 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정서적 비용을 이야기한다. 내가 이 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 이유는 저자인 변우민 배우를 30여 년 전에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우연히 대학 선배의 식사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선배의 친구가 변우민 배우였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의 인생 역정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스토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기억

나는 그의 어록은 “얼굴 잘생겼다고 모두 성공한 배우가 되지는 않는다. 충무로 가 보라. 잘생긴 남자들 천지 빼까리다. (매우 많다.) 얼굴이 아무리 잘 나도 피나는 노력이 없다면, 그리고 작품을 함께 만드는 출연자 및 스태프와 공감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없다면 성공하기 너무나 어려운 바닥이다. 그런 노력을 할 각오와 좋은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연예인이 될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기 배우가 들려준 진짜 “체험 삶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고 그를 흠모하게 되었다. 그와 그의 누이가 쓴 책을 내가 어떻게 사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공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 식당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모습,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상황 등을 아직도 기억한다. 유명세가 참으로 좋기만 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 부담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07쪽의 <한국에서는 누가 가위를 드나요>에서는 정부의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이 논의된다. 이 부분을 읽으며 한국의 대중문화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일으킨 한 인물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정태춘이다. 1979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춧불>, <떠나가는 배>, <시인의 마을>, <사랑하는 이에게> 등의 히트곡으로 밀리언셀러에 오른 정태춘은 아직도 많은 팬을 보유한 싱어송라이터이다. 내가 정태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초기 작품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 및 가창력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 문제에 열

마나 치열하게 참여하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1970년대의 히트곡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행동가이자 투사였다. 그를 투사로 만든 것은 자신이 작사한 주옥같은 가사를 아무 근거 없는 검열로 훼손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도 모든 가수들은 미리 써놓은 가사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 및 심의를 받아야 했다. 정태춘의 대표작 <시인의 마을> 가사가 공윤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창문을 열고 음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필리버~~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당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의 세찬~~ **맑은 한 줄기 산들바람**

살며시 눈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빗들의 말발굽~~ **자연의 생명의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 **따뜻한 사랑 건네** 주리오

내 작은 가슴에 ~~앉아~~ **달래** 주리오

누가 내게 ~~탈춤의~~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오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오

나는 ~~코뮌~~ **자연의** 친구 ~~방랑~~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반반~~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인의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릴 들을테요.

심의 결과 <시인의 마을> 노랫말 중 깃발, 탈춤, 고독, 방황, 변민, 방랑자 등의 단어는 이른바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어 뜬금없는 단어들로 교체되었다. 1980년대의 엄혹한 시절을 보낸 그는 돈과 명예를 보장받는 유명 연예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행동하는 투사로 변신한다. 그리하여 그는 1990년 <아, 대한민국>, 1993년 <92년 장마, 종로에서> 등 비합법 음반을 내면서 사전심의 폐지 운동을 시작하였다. 길고 힘든 투쟁의 결과 1996년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1996년 하면 내 또래의 사람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을 먼저 떠올리지만, 불의한 제도에 격렬히 저항했던 정태춘의 헌신이 없었던들 지금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빅뱅, 싸이, BTS, 로제의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정태춘의 삶은 부하의 총탄에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어느 독재자가 즐겨 인용했던 飲水思源이라는 말을 더 마음에 다가오게 한다.

변지원 교수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보물상자는 아니지만 결코 바보상자도 아니다. 문학작품이 작가의 정신세계를 비추는 것과 같이 텔레비전 콘텐츠도 제작자의 상상력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영상 매체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파드캐스트를 비롯한 음성 매체가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 소설과 웹툰 등의 문자 매체도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체의 다양성이 확대될 뿐 어느 한 형태의 매체가 다른 매체를 압살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이 편지에서 전보로, 전화

로, 문자 메시지와 화상전화로 변모했지만, 매체가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고전적인 손편지가 주는 신선함과 감동이 있기에 영원히 편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오히려 매체의 다양성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조건이 될 것이다. 영상 매체가 콘텐츠 시장의 주인공에 등극하였고 그 통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가짜 뉴스 규제와 같은 영상 매체의 홍수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고르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 (cautiously optimistic)이다. 기성세대가 진심을 갖고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는다. 옛사람들이 이유 없이 靑出於藍이라고 설파했겠는가?